

조선일보 이슈 진단 및 분석

2019147036 김륵구
2019147023 박민찬
2019147014 이혁주
2020147051 장건

朝鮮日報

Contents

01

이슈 1. '루나 사태' 권도형 체포 영장 발부

https://archive.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_s.jsp?Y=2022&M=09&D=15&ID=2022091501008SH103

02

이슈 2. 실내 마스크 의무화, OECD중 한국 뿐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2/09/17/3WN7J7LPQJH4PLWN55OKLO56IA>

朝鮮日報

이슈 1

‘루나 사태’ 권도형 체포 영장 발부





● 테라, 루나 코인개요

- 권도형 대표와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의장이 합작하여 테라, 루나 코인 발행
- 사태 발생 전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 중 시가 총액 3위
- 루나는 시가총액 약 50조원 이상 도달하며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 안에 도달



좌 전 티몬 창업자 신현성 의장, 우 권도형 대표

이슈 1. 루나 사태



● 테라 - 루나 코인 원리

- 테라(UST)는 \$1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 루나(LUNA)는 테라의 가치를 보증하는 코인
- 테라(UST)의 가격이 \$1 기준에서 변동할 때, 루나와 테라의 수량으로 가격 조절
- 테라(UST)의 높은 이자율(약 연 20%)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



이슈 1. 루나 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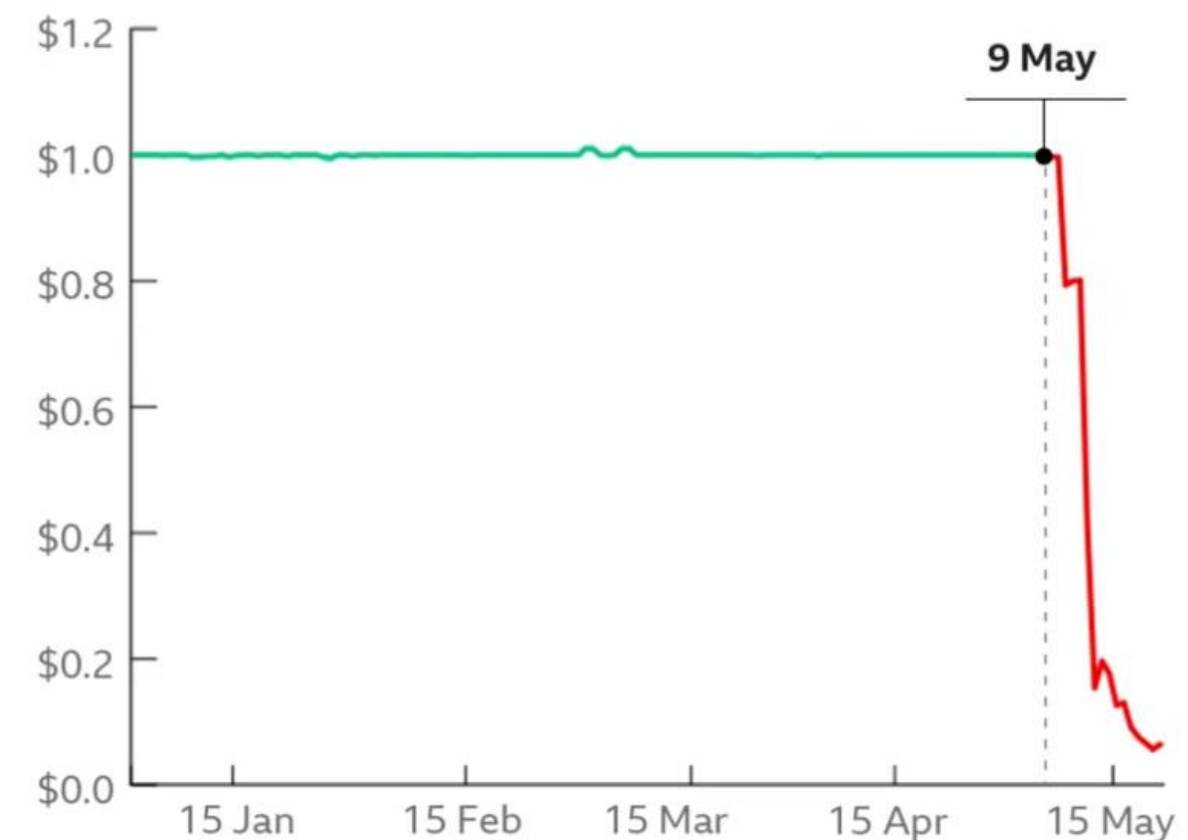
● 테라 - 루나 코인 폭락

- 시장 참여자들은 암호화폐 시장 하락과 함께 테라(UST)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짐
- 2022년 5월 6일까지 \$82에 거래되던 루나(LUNA)는 5월 13일 \$0.00001 까지 **폭락**
- \$1에 가치가 고정된 테라(UST)는 \$0.01에 못 미치는 가격까지 **폭락**
- 거래소들이 줄줄이 루나 코인을 상장폐지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

The collapse of Terra (Luna)



The collapse of TerraUSD (UST)



● 권도형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 검찰은 현재 권도형 대표 등이 루나의 가격 상승을 위한 과장 및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거래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정황으로 의심중.
- 검찰은 권도형 및 테라 관계자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 테라 투자자들도 권도형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 권도형 대표는 싱가포르에 체류중이라고 알려졌으나, 구속 영장이 발부된 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

시사점

1. 루나 코인 투자자의 피해를 정부에서 구제해야하는가
2. 루나 코인의 권도형 대표를 처벌해야하는가
3.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찬반토론: 암호화폐를 제도화해야하나?

찬성

1. 제도화로 투자자들의 피해 규제
2. 코인 투기판을 방임한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일본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문제 초래

반대

1. 탈중앙화의 목적으로 제작된 암호화폐의 본질을 해침
2. 단계적 규제가 아닌 무분별한 규제는 미래산업 먹거리인 블록체인 기술 발전 경쟁에 뒤쳐짐

이슈2. 실내 마스크 의무화, OECD중 한국 뿐

"유럽선 아무도 실내 마스크 안 쓰더라"... '노마스크' 가시화되나

이슈2.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이슈 "실내 마스크 의무화, OECD 중 한국뿐"

OECD 주요국 실내 마스크 의무화 현황

착용 의무 시설	국가
없음	미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의료(약국 포함)	뉴질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의료·사회복지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의료·대중교통	이탈리아
의료·사회복지·대중교통	독일
의료·공공기관	코스타리카
의료·사회복지·대중교통·숙박·교정	호주
의료·사회복지·대중교통·숙박·슈퍼마켓	그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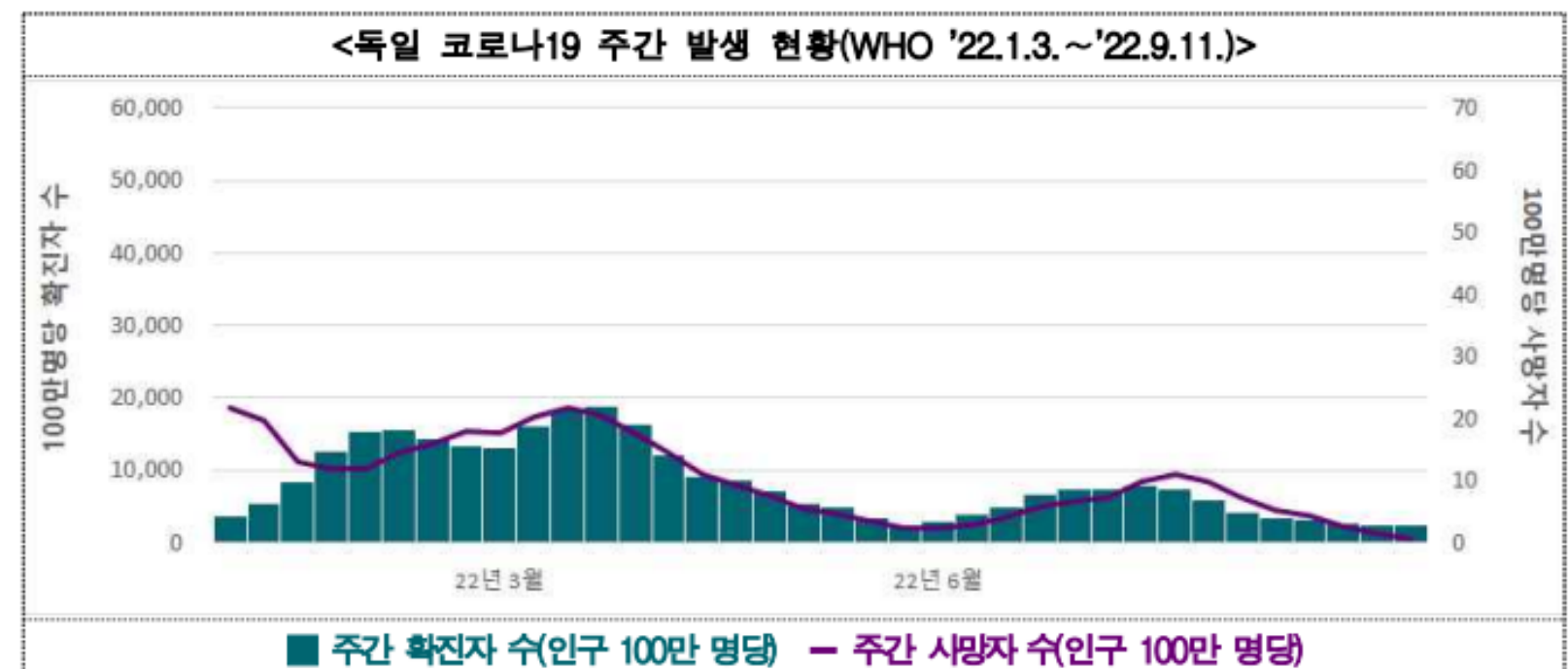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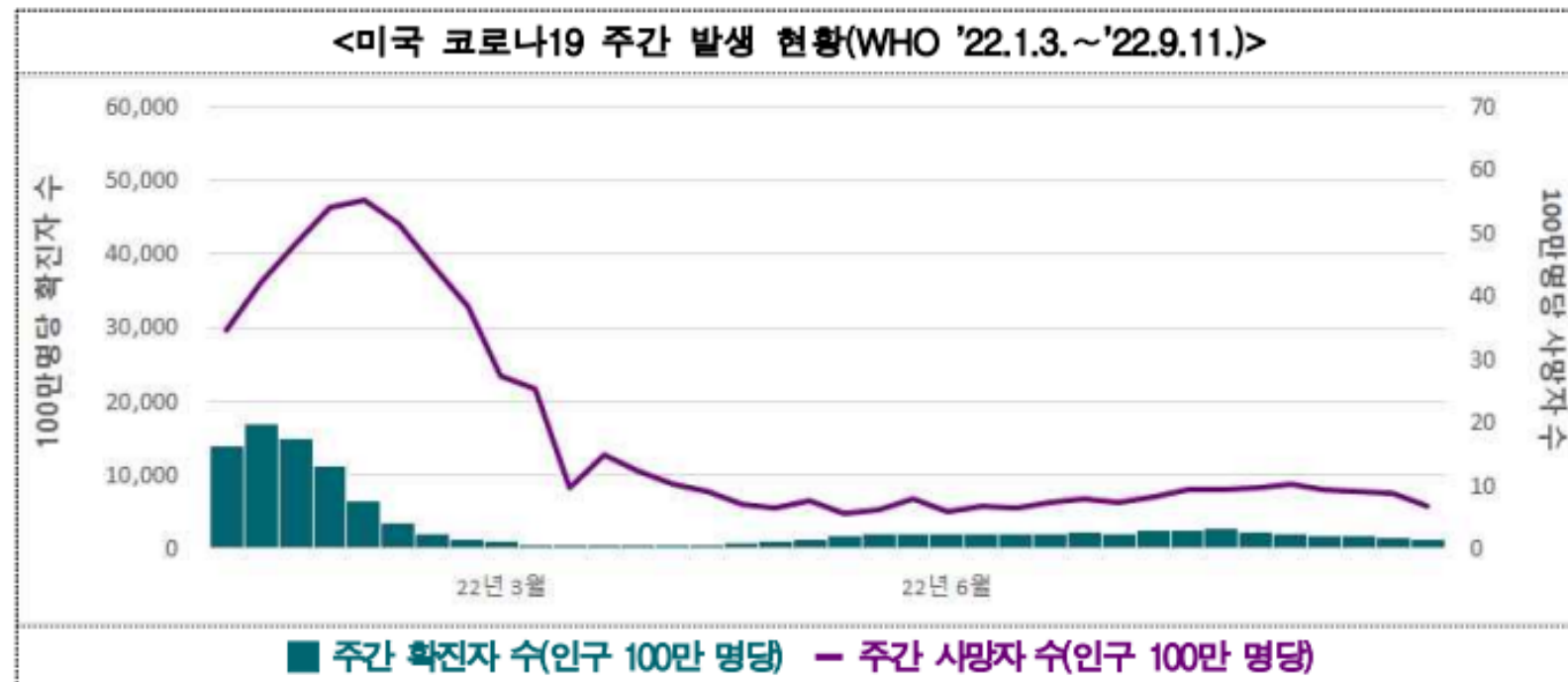
자료: 질병관리청

OECD국가 가운데 **모든** 실내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혀 없는 국가 다수,
나머지 국가들도 의료시설과 대중교통을 제외하면 대
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음

이슈2.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이슈 - 해외 상황(수치)



외국(특히 유럽권)의 경우 실내 마스크 의무 규정을 해제하고도 확진자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며, 100만명당 확진자 및 사망자는 오히려 국내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

이슈 - 문화적 차이

- 국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여전히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더 많이 보인다.
- 일본은 애초에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적이 없고, 싱가포르도 실내에서만 의무화돼 있지만, 많은 사람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
- 반면 유럽, 미국 등의 서구 국가는 실외는 물론이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별로 없다.
-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할 때도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적지 않았다.

→ 이는 문화 차이에서 유래했다는 분석

이슈 - 문화적 차이

- 서양에서는 마스크를 쓰는게 강도, 도둑처럼 범죄자가 쓴다는 인식이 있으며, 익숙하지 않은 걸 억지로 강제한다고 생각함
- 동양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적으며, 특히 한국은 황사, 일본은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마스크에 익숙함
- 서구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느냐고 반발해 마스크를 벗어 던지지만 동양은 국가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남에게 피해를 덜 주려는 집단주의 문화에 익숙

찬반 입장

찬성

우리도 일부 장소만 빼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때

VS

반대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찬성 입장

유럽의 경우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
대유행 없이 잘 유지 중임

+) 영국은 올해 1월말 실내 마스크 해제
당시 100만명 당 확진자 수가 130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100명대로 유지 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화)로,
계절에 따라서 에피데믹(계절
유행)으로 변화해야 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 팬데믹
종식이 늦춰지면 경제, 사
회, 문화적인 활동도 뒤쳐
지므로, 우리도 논의를 시
작해야 함

반대 입장

최근 7일간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			
	구분	100만명당 확진자	100만명당 사망자
1	대만	11,588	10.0
	홍콩	7,698	9.0
	한국	7,444	7.0
4	슬로베니아	6,721	6.0
	일본	4,823	10.0
	라트비아	4,057	7.0
7	오스트리아	3,568	2.0
	리투아니아	3,128	3.0
	프랑스	2,712	3.0
10	독일	2,703	8.0
2022-09-17			
lometer		topstarnews	

지난해 11월 ‘위드코로나’,
그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등은 코로나 재유행에 의해
흐지부지됨.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
도록 신중한 전략 수립 필요

특히 이번 겨울은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함께
유행할 ‘트윈데믹’ 가능성
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최근 업데이트 방침

질병관리청 방대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추가 조치를 준비중이라 밝힘

- 가장 먼저 실외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검토. 지난 5월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했지만 여전히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중. 그러나 야구장 등에서 취식이 허용되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실내 마스크 의무화 이후 꾸준히 제기된 영유아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 저해 문제 역시 인지하고 있는 만큼
영유아단계부터 우선적으로 의무 해제를 검토할 예정

시사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 것인가
- 전부 해제할 것인가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등 일부는 유지하고 나머지를 일괄 해제할 것인가
- 애초에 마스크 착용을 강제시킬 수 있는가? (권고할 수 없는지)
- 영유아 단계부터 시작하여 연령별로 해제할 것인가 (정책의 방향성)

이슈2.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참고문헌

- "실내 마스크 의무화, OECD중 한국뿐"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2/09/17/3WN7J7LPQJH4PLWN55OKLO56IA/?_branch_match_id=1057897615830142270&utm_medium=sharing&_branch_referrer=H4sIAAAAAAAAAA8soKSkottLXT87ILy7N00ssKNDLyczL1k8M9AjxczQoLyhJAgDxKE7tlwAAAA%3D%3D]

- "엔데믹 가까워졌다...정부,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 속도낼 듯"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6149400530?input=1195m>

- "코로나 확진자 2만5795명"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739832>

- "유럽선 아무도 실내 마스크 안쓰더라...'노마스크' 가시화되나"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9/16/J7MK27CPHJH6FJRHVMAccQBI7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질병관리청 9.20.보도참고자료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9015#home>](<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9015#home>)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2/09/21/UYOK45PMNVDJTGVWWKR4GLYB7E/>](<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2/09/21/UYOK45PMNVDJTGVWWKR4GLYB7E/>)

Q&A

Thank you
